

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8.31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unlee@hanafn.com

미국증시, B2C보다 B2B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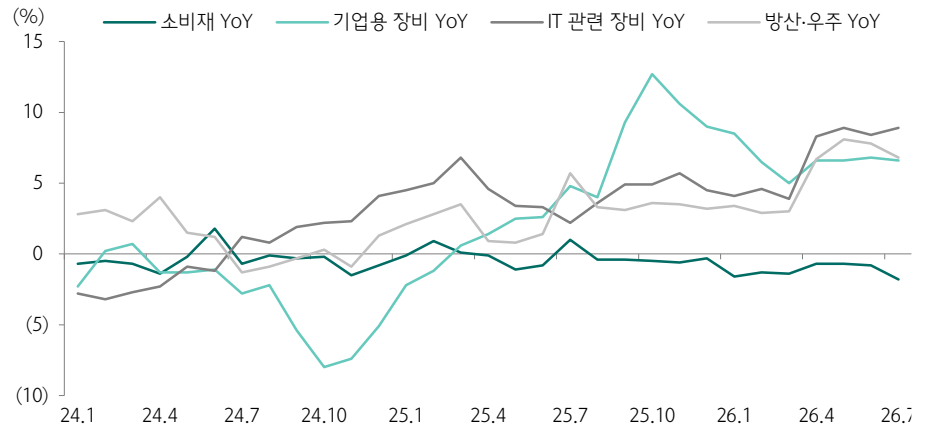
미국 소비재 생산은 부진하지만 기업 투자와 AI, 방산 생산은 견조

- 미국의 산업생산, 투자, 무역 지표에서 B2C보다 B2B의 상대적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B2B 내에서는 AI 인프라와 방위산업 등의 생산, 조달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
- B2C보다 AI 인프라와 방위산업 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유지

- 우리는 미국증시에서 B2C보다 B2B에 주목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 미국 소비 자체가 크게 위축된 것은 아니지만 생산과 투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영향을 받는 B2B(AI 인프라, 방위산업 등) 관련 지표의 강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AI 인프라와 방위산업은 생산과 투자 지표에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산업 모두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책 관련 노이즈가 높아질 수 있으나, 미국의 기술패권과 국가 안보에 직결된 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
- B2C와 B2B의 차이는 산업생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7월 미국 소비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했으나, 기업용 장비는 6.6% 증가했다. 정보처리 관련 장비(IT)와 우주항공 및 방산 제품의 생산은 각각 8.9%, 6.8% 확대되며 소비재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컴퓨터 및 전자제품 생산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성이 높은 B2B 생산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다.
- GDP에서도 B2B의 상대적 강세가 확인된다. 2분기 미국 개인소비는 전분기 대비 연율 3.4% 증가했으나, 비주거 고정투자는 8.5%, 장비 투자는 13.6% 증가했다.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소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산업생산뿐 아니라 실제 GDP 지출 항목에서도 기업 투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소비에만 의존하기보다 설비투자과 AI 인프라 등 B2B 영역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무역 지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7월 잠정 상품무역 기준 미국 소비재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1.7% 감소했지만 자본재 수입은 46.9%, 자본재 수출은 13.1% 증가했다. 자본재 수입은 전월 대비로도 11.3% 증가했다. 소비재보다 기업의 생산과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 교역이 훨씬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산업생산과 GDP에서 확인되는 B2B의 상대적 강세와 일치한다.
- 방위산업에서도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확인된다. 7월 미국 방산 및 우주 장비 산업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6.8% 증가했다. NATO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2035년까지 GDP의 5%를 국방 및 안보 관련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2026년 양카라 정상회의에서는 500억 유로 이상의 방산제품 신규 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심층 정밀타격과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등이 주요 조달 대상이다. 국방비 확대가 실제 무기 조달과 생산능력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산업의 중장기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 미국 증시에선 B2C보다 기업 투자와 정책 수요가 집중되는 B2B에 상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와 서버, 네트워크, 데이터센터 전력 및 전력장비까지 투자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방위산업도 NATO의 국방비 확대와 실제 무기 조달 증가, 생산능력 확충이 중장기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 B2B 전반보다 투자와 생산 확대가 실제 매출과 수주로 연결되는 AI 인프라와 방위산업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항공우주 및 방산 내에서는 국방 수요와 함께 민항기 MRO 및 애프터마켓 수요를 확보한 RTX에 대한 선호를 지속한다.

도표 1. 산업생산: B2C vs. B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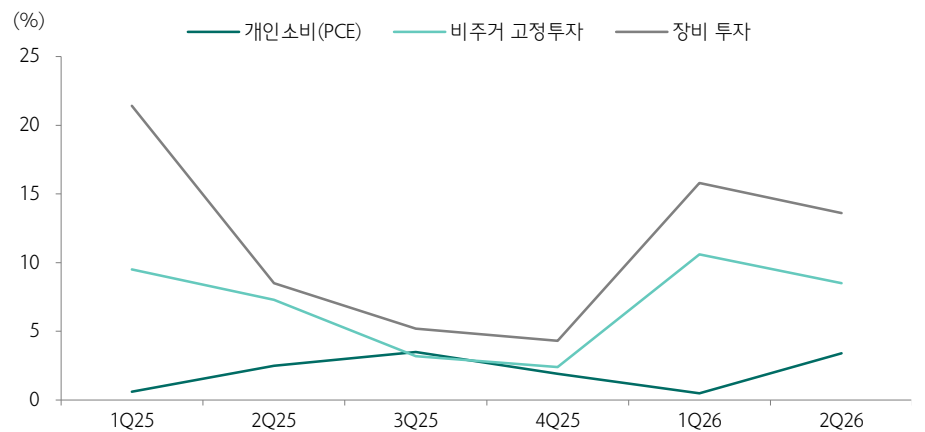
미국 산업생산,
소비재와 B2B의
차별화 지속



자료: FED, 하나증권

도표 2. 미국 GDP: 소비보다 강한 기업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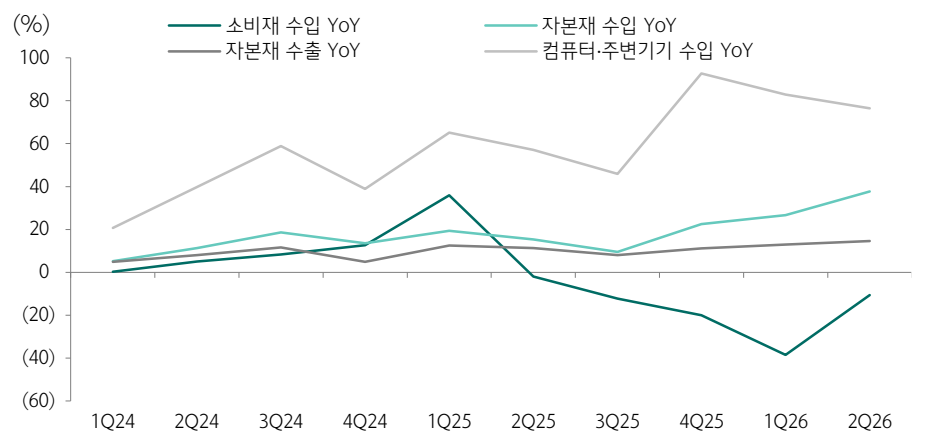
소비도 성장하지만
기업투자의 성장강도가
더 높은 상황
(QoQ, 연율)



자료: BEA, 하나증권

도표 3. 무역 주요 항목 추이

소비재 수입보다
자본재와 AI 관련
교역이 강한 상황



자료: BEA,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7,711.8	26,402.4	53,560.0	3,952.2	2,550.2
1W (%)	0.5	0.8	0.5	1.2	0.4

주) 8월 28일 종가 기준

Review & Preview

» 지난 주(8월 24일~8월 28일) 리뷰: 양호한 흐름 이어가는 중

- 지난주 미국중시 3대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다. 3대지수 수익률은 다우지수 +0.5%, S&P 500 +0.5%, 나스닥 종합지수 +0.8%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0.5%,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는 1.5% 하락했다. 시장참여자들은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선호했다. 성장주로 구성된 ETF(VUG)와 가치주로 구성된 ETF(VTV)의 주간 수익률은 각각 +1.2%, -0.5% 등이다. M7으로 구성된 ETF(MAGS)는 2.7% 상승했지만, 非-M7 ETF(XMAG)는 0.6% 떨어졌다. 변동성지수(VIX)는 4.6% 하락했다.
-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한 것은 PCE 가격지수, 엔비디아 실적,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잭슨홀미팅 후 연설 등이다. PCE 가격지수는 예상 수준이었다. 서비스 물가가 견조했다. 서비스 중 상당 부분 차지한 건 금융서비스다. 포트폴리오 관리 및 투자자본 서비스가 월간 Core PCE 상승률에 약 10bp 영향을 미쳤다. 이 항목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 압력은 약했을 것이다. 상품 물가의 경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의 상승이 있었다. 6월 말 애플의 기기 가격 인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 엔비디아는 호실적과 가이드언스를 발표했다. 시장참여자들이 걱정하는 실적 가시성, ASIC과의 경쟁 극복 방안, 순환 금융 등에 대해 상당부분 답을 제시했다. 이례적으로 FY 2028 매출 성장률(YoY +70%)을 제시했다. 그 동안 추상적으로 수요가 강하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확보 가능한 공급능력 기반한 전망을 구체적인 숫자로 발표한 것이다. 시장참여자들이 순환금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신용을 지원한 기업들의 고객은 실수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통해 GPU 수요, CUDA 생태계 확장, 높아진 투자지분 가치, 신용지원 기업들의 클라우드 매출 일부 수취 등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 잭슨홀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됐다. 워시 의장은 기초적인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를 향해 충분히 빠르게 하락하지 않으면 연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안정돼 있으나,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반적인 금융 여건에 대해선 제약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회사채, 레버리지론 스프레드와 대출 시장에 뚜렷한 긴축 신호가 관측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장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했으나, 연설 서두에 포워드 가이드언스라고 보면 안된다고 한 점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확정적인 예고나 신호로까지 단정지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 상승섹터는 정보기술(+1.8%), 커뮤니케이션(+1.6%), 금융(+1.1%), 경기소비재(+0.1%) 등이다. 하락 상위섹터는 헬스케어(-2%), 에너지(-2%), 산업재(-1.7%), 부동산(-1.3%) 등이다. 정보기술 하위 부문에선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다. IGV ETF는 5.9% 상승했다. 커뮤니케이션은 메타(+5.1%)의 상승이 긍정적이었다. 단기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는 차익실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는 유가의 하락(WTI -4.2%, Brent -6.5%)이 섹터 약세를 유발했다.
- M7 기업은 테슬라(-3.9%)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MSFT +6.3%, META +5.1%, AAPL +3.3%, AMZN +3%, NVDA +1.3%, GOOGL +0.5%). 테슬라는 중국에서 약 300만 대의 대규모 리콜 소식이 있었다. 중국 당국이 테슬라의 매립형 문손잡이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사고 발생 후 창문을 자동으로 내리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비상용 수동 개폐장치 위치를 알리는 라벨도 더할 예정이다.

» 이번 주(8월 31일~9월 4일) 프리뷰: 고용지표와 금리, 기업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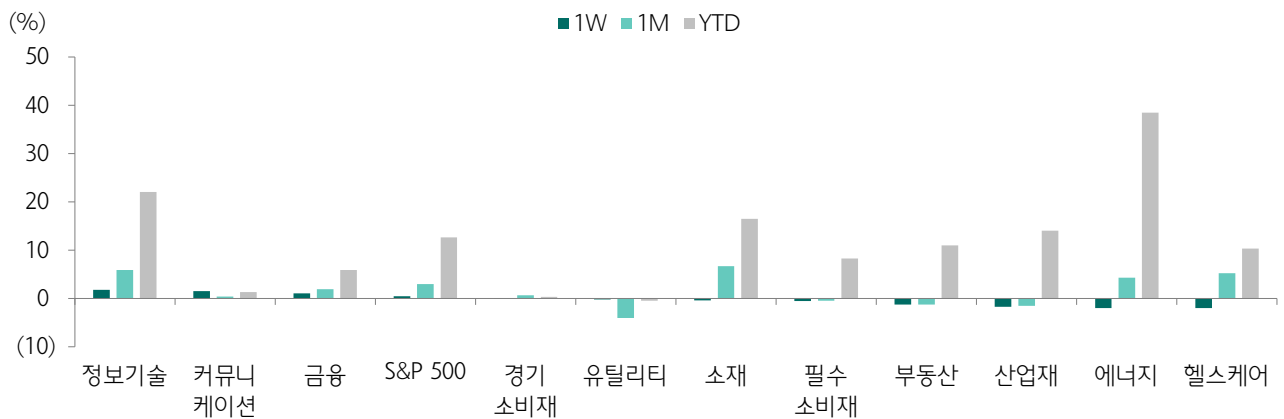
- 이번 주 시장참여자들은 고용지표와 주요 연준인사들의 발언, 금리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실적에선 브로드컴, 서버 모듈 기업(DELL, HPE), 사이버보안 기업(PANW, ZS),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SNOW, MDB) 등을 주시할 것이다.
- 이번 주 금요일엔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8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주 잭슨홀미팅에서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케빈 워시는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시장이 건전함을 시사했다. 일하려는 사람들은 대체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거나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다. 최근 졸업생처럼 일부 취약한 영역은 인정했으나, 전체 노동시장이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점을 시사했다.
- 8월 고용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다. 7월 고용이 약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고용약화 영향이다. 교육 고용 부문에서 여름방학에 따른 대규모 계절적 이탈을 계절조정이 완전히 걸러내지 못했다. 미국 노동통계청(BLS)에 따르면 교육부문 고용은 매년 학년이 끝날 때 급감하며, 봄 학기 종료 시 교육부문 Payroll이 약 20% 감소했다가 가을 학기 시작과 함께 다시 증가하는 매우 계절적인 업종이라고 한다. 8월 고용지수가 반등한다고 해서 노동시장이 다시 강해졌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할 수 있다. 교육부문을 제외한 민간고용이 실제로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
- 케빈 워시의 발언 이후 금리의 움직임도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지난주 잭슨홀미팅 후 미국채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미국채 2년물은 12bp, 10년물은 5bp, 30년물은 2bp 올랐다. FedWatch의 9월 25bp 금리인상 가능성도 8월 21일 39.9%에서 57%로 상향됐다.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강세를 보였다(Bear Flattening).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은 높은 장기물 미국채의 금리다. 시장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준이 강경하다고 인지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소 약해질 여지가 있다. 단기적으로 주식에 불안 요인일 수 있지만,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면 장기금리에 대한 걱정이 다소 약해질 여지가 있다.
- 브로드컴의 실적은 예상보다 견조할 것이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 공급망 등의 문제로 다소 보수적인 AI 반도체 실적 전망을 제시해 시장참여자들은 실망했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선 FY 2027 AI 매출 1,000억 달러 이상 전망의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전망보다 더 강한 가이던스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수요가 강하다는 추상적인 가이던스가 아닌 공급망 기반의 실적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브로드컴도 고객별 램프와 공급 확보를 얼마나 구체화하는지가 중요하다.
- 최근 브로드컴에 대한 불안 중 하나는 구글 TPU 생태계 내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다. 8월 구글은 마벨과 TPU 생태계에 연결되는 AI 추론 가속기, NIC, 메모리 추론 컨트롤러, 니어 메모리 컴퓨트 등 광범위한 Custom 칩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이 치대 1,200억 달러를 구매할 경우 마벨에 부여된 워런트가 행사되는 구조다. 마벨이 해당 계약의 이미있는 매출 기여가 FY 2029 이후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브로드컴의 TPU 매출을 바로 대체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구글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이다.
- 서버 모듈 기업들(DELL, HPE 등)의 실적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 컨센서스도 지난 실적발표 이후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기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선행적인 주문이 있었을 것이다. DELL보다는 HPE를 시장참여자들이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킹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주니퍼 인수 후 네트워킹 사업이 실적에 기여를 하고 있다. 서버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황이라면 네트워킹은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 될 수 있다.
-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와 경제지표 발표는 31일 8월 시카고 PMI(예상치 57.8, 이전치 57.6) / 8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이전치 1.3), 9월 1일 8월 ISM 제조업 PMI(예상치 55.3, 이전치 55.6) /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예상치 53.2, 이전치 53.2) / 7월 JOLTS 구인 건수(이전치 7,359,000 건), 2일 애틀랜타 연은 GDPNow / 7월 공장주문 MoM(이전치 -0.3%) / EIA 주간 원유재고, 3일 베이징 북 / 8월 챌린저 실업자 수 /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 7월 수입 및 수출 / 8월 ISM 비제조업 PMI(이전치 54.1) / 8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예상치 56.8, 이전치 56.8), 4일 8월 비농업 고용(예상치 45,000 건, 이전치 -23,000 건) / 8월 평균 시간당 임금 MoM(예상치 0.2%, 이전치 0.1%) / 8월 실업률(예상치 4.2%, 이전치 4.1%) 등이 있다.
- 연설이 예정된 주요 인사로는 1일 바 연준 부의장(중립, 투표권 있음), 3일 월러 연준이사(중립, 투표권 있음)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은 9월 1일 PANW / DELL / MDT / CRDO / MDB / GTLB, 2일 AVGO / SNOW / HPE / NTAP / FIVE / AI, 3일 CIEN / ZS / IOT / LULU / DOCU / TTAN / PATH / PL / AMBA 등이 있다.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08/28)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7,711.8	-0.2	0.5	3.0	1.7	12.1	19.4	12.7
나스닥	미국	26,402.4	-0.5	0.8	4.1	-2.1	16.5	23.1	13.6
다우	미국	53,560.0	-0.0	0.5	2.0	5.0	9.4	17.6	11.4
STOXX600	유럽	655.2	0.5	0.1	0.9	4.7	3.4	19.1	10.6
KOSPI	한국	6,788.9	-1.8	-1.8	2.9	-19.9	8.7	113.1	61.1
KOSDAQ	한국	838.4	0.1	4.5	16.5	-22.0	-29.7	5.2	-9.4
상해종합지수	중국	3,952.2	-0.1	1.2	3.1	-2.9	-5.1	2.4	-0.4
심천종합지수	중국	2,550.2	-0.4	0.4	5.0	-9.1	-7.7	4.4	0.8
항테크지수	홍콩	25,584.8	0.1	-1.6	-1.2	1.6	-3.9	2.0	-0.2
TOPIX	일본	4,146.7	0.7	2.0	3.6	4.8	5.3	34.8	21.6
니케이 225	일본	66,405.6	0.4	0.6	3.2	0.1	12.8	55.4	31.9
니프티 50	인도	24,175.7	0.4	-0.3	-0.9	2.7	-4.0	-1.0	-7.5
Vietnam	베트남	1,832.1	0.0	3.6	3.9	0.7	1.0	9.0	2.7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8.28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정보기술: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등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2분기 호실적이 잇따르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강세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헬스케어: 전주 mRNA 암 백신 임상 성공으로 급등했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 출회
- 에너지: 파키스탄 중재로 미-이란 갈등 완화 기대가 높아지며 전쟁 프리미엄 축소, 유가 급락에 에너지 기업 주가 동반 약세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8/24	엔비디아 AI 서버 가격 15% 이상 인상 예고...메모리 품귀가 주요인 MS, 구글, 오라클 등 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에 서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내년 초 출하분부터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을 통보. 베라 루빈, 그레이스 블랙웰 탑재 서버도 영향을 받으며, 인상 폭은 칩 세대와 메모리 구성에 따라 상이. AI 인프라 수요 급증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메모리 가격이 급등한 것이 핵심 배경. 빅테크들이 자체 AI 칩을 개발해도 메모리 확보가 안 되면 독립적 공급망 구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
8/24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윤곽 공개, 다음달 출시 예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을 테스트한 관계자들은 주머니에 넣기 편한 휴대성과 견고한 힌지를 주요 장점으로 꼽음. 펼쳤을 때 아이패드처럼 앱 배치가 가능하고 카메라 촬영 시 대형 뷰파인더로 활용 가능. 다만 기존 아이폰 프로와 달리 망원 카메라가 빠진 듀얼 카메라로 구성될 전망이며, 가격은 최소 2,000달러에서 최대 2,500달러 이상까지 예상. 공개 행사는 9월 9일 전후가 유력하며 아이폰 18 프로, 18 프로맥스와 함께 공개 예정
8/25	엔비디아, 그록3 LPX 랙 본격 양산 엔비디아가 그록3 LPX 랙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발표. 지난해 12월 체결한 200억 달러 규모의 그록 라이선스 계약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 256개 그록3 칩을 탑재한 LPX 랙은 초당 3,400토큰을 처리하며, 네비우스 데이터센터에서 베라 CPU 및 루빈 GPU와 함께 연내 가동 예정. 그록 칩은 삼성전자가 생산하며 5GB의 S램을 탑재해 메모리 병목을 최소화
8/26	오픈AI, 자체 추론 칩 '할라피뇨' 공개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력해 개발한 자체 추론 칩 '할라피뇨'가 엔비디아 GB300 대비 전력 단위당 처리량과 응답 속도 두 부문에서 앞선 성능을 기록했다고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자사 AI 모델 지원에 실제 투입할 계획. 700와트의 낮은 전력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내 데이터센터 운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AI 훈련이 아닌 추론 단계에 특화. 2세대 칩 개발도 상당히 진척됐으며 향후 몇 달 내 테이프아웃 예정
8/26	트럼프, 美 전력망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외국인 전력망 장비의 구매, 수입, 설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IEEPA에 근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적용 범위는 변압기, 발전기,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 인버터, 고압 차단기, 전력망 제어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까지 광범위하며 이미 설치된 장비도 교체 및 철거 명령이 가능. 외국인 장비에 원격 접근 가능한 '디지털 백도어'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과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망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것이 배경. 행정명령이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
8/27	미국 7월 PCE YoY +3.7%, 예상치 소폭 상회 미 상무부, 7월 헤드라인 PCE가 YoY +3.7%, MoM +0.2%로 시장 예상치를 각각 0.1%p 상회했다고 발표. 근원 PCE는 YoY +3.3%, MoM +0.2%로 예상치에 부합. 서비스 물가(MoM +0.3%)는 상승한 반면 상품 물가(-0.8%)는 하락. 헤드라인이 예상치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질 수 있으나, 근원이 예상치에 부합해 물가 압력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존재
8/27	메타, 청소년 중독 소송 23조원 합의...자정부터 오전 6시 접속 차단 메타가 미국 47개 주와 최대 167억 달러(약 23조원) 규모의 합의안을 마련. 우선 117억 달러를 지급하고 경쟁사들이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면 최대 167억 달러까지 확대. 합의 확정 시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합산 하루 최대 2시간 이용 가능,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 차단. 경쟁사들도 같은 규제를 수용할 경우 이용 한도는 하루 1시간으로 줄고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로 확대. 합의는 법원 승인 후 효력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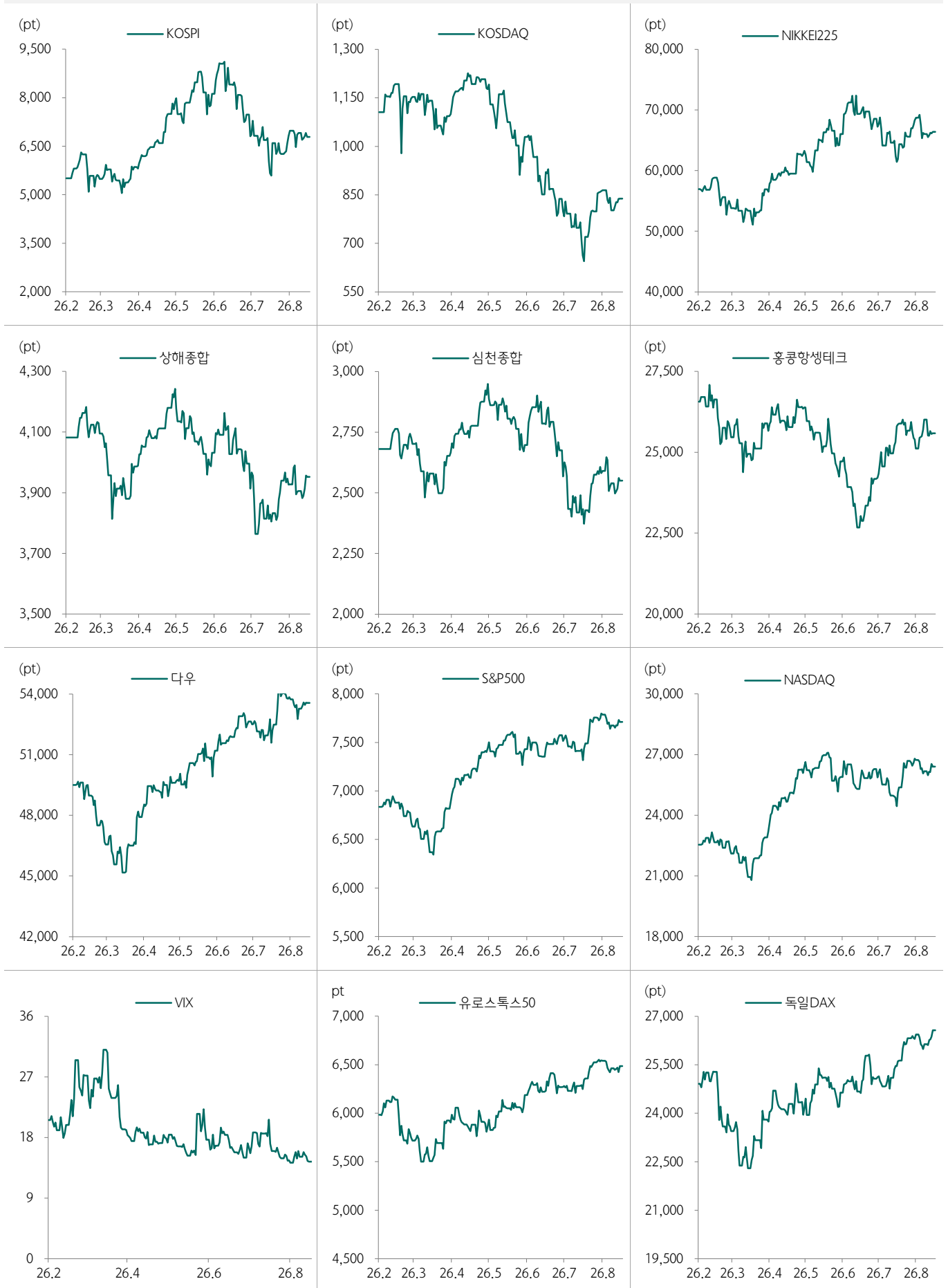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9월)

일	화	수	목	금
	1	2	3	4
	PANW MDT CRDO MDB DELL GTLB	AVGO SNOW HPE NTAP	CIEN LULU ZS IOT PL CPB DOCU TTAN	
7	8	9	10	11
	FCEL	CPRT COO CHWY GME AVAV ODD	ADBE M	KR
14	15	16	17	18
ORCL			CCL DRI LEN FDS	
21	22	23	24	25
		GIS	COST NKE JBL	
28	29	30		
	MU AZO KMX	CTAS PAY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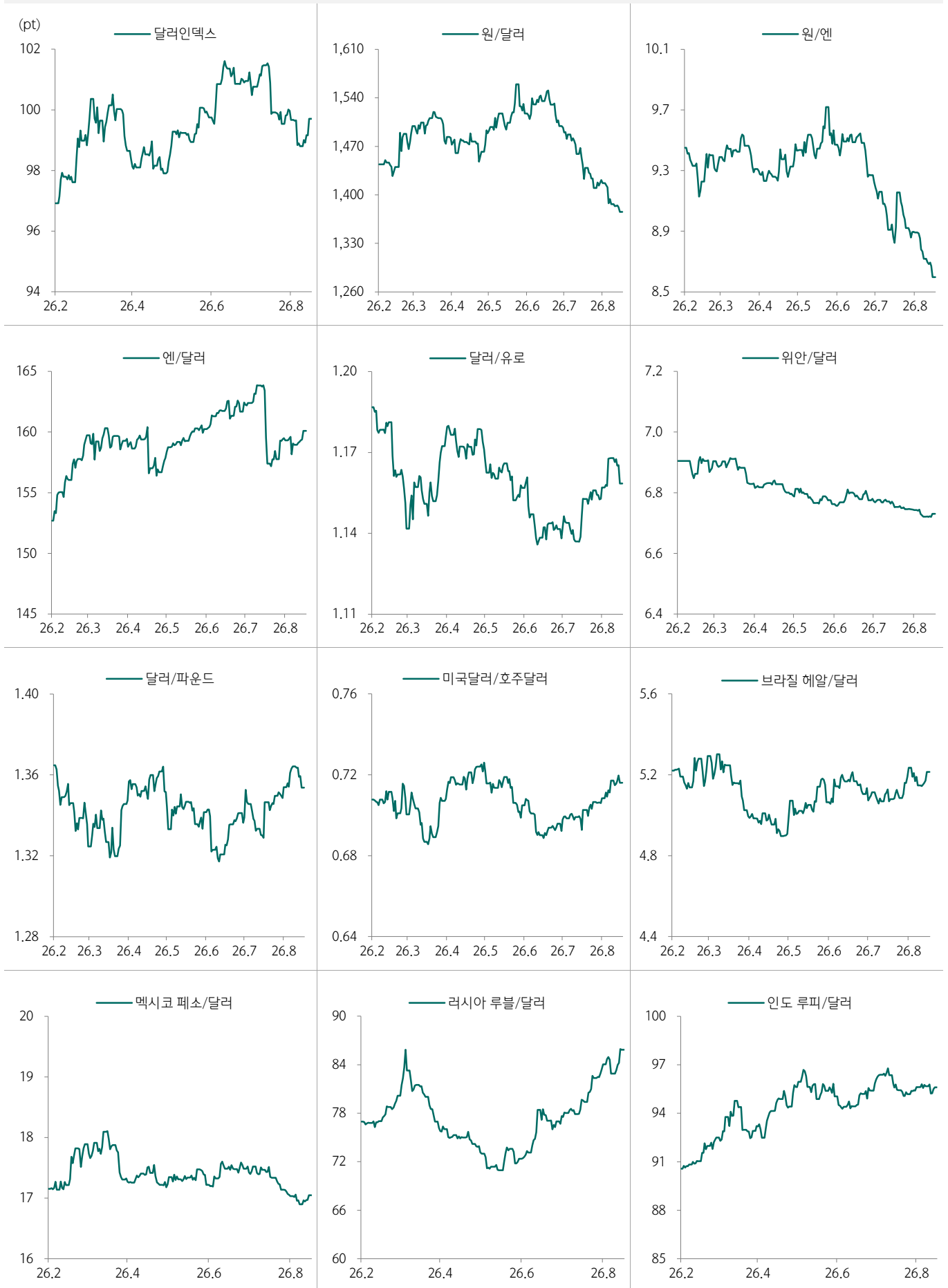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8/31(월)	8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7.6)
9/1(화)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3.2) 8월 ISM 제조업구매자지수 (이전 55.6) 7월 미국 노동부 JOLTS 구인, 이직 보고서 (이전 7.359M)
9/2(수)	8월 ADP 비농업부문 고용 변화 (이전 44K) 7월 공장수주 (MoM 이전 -0.3%)
9/3(목)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 (이전 56.8) 8월 ISM 비제조업구매자지수 (이전 54.1)
9/4(금)	8월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MoM 이전 0.1%) 8월 비농업고용지수 (이전 -23K) 8월 실업률 (이전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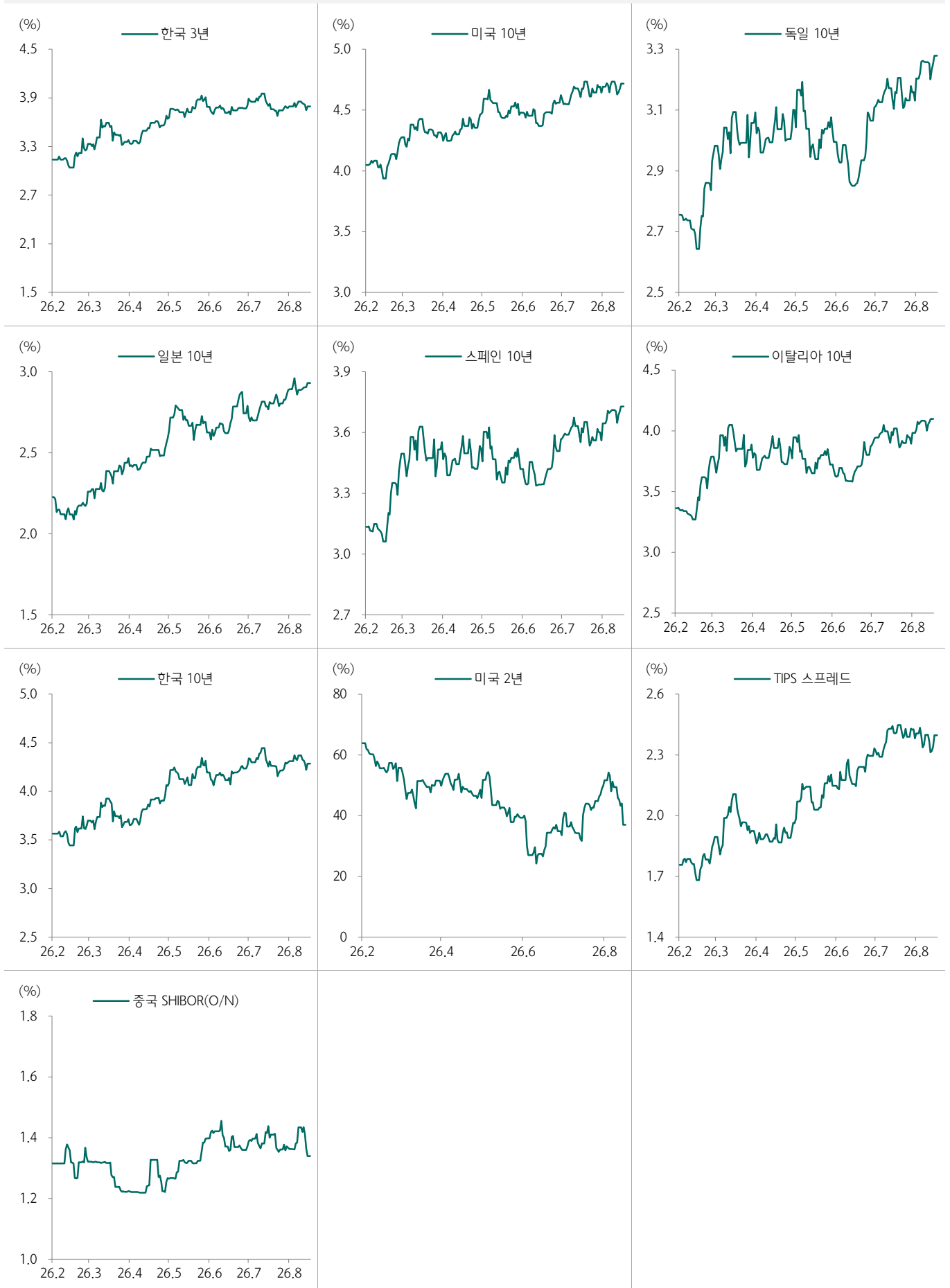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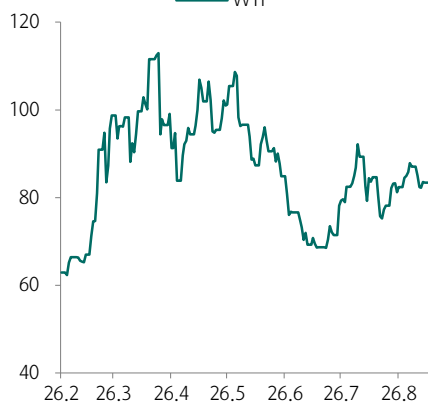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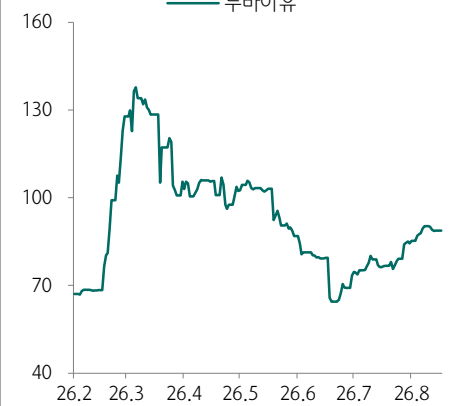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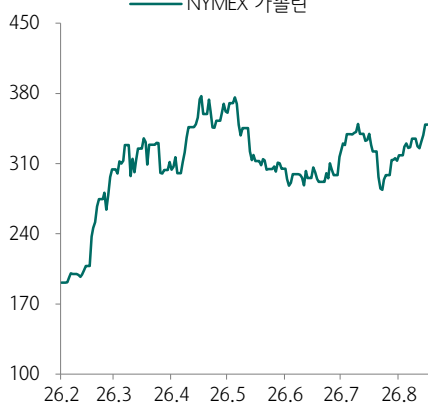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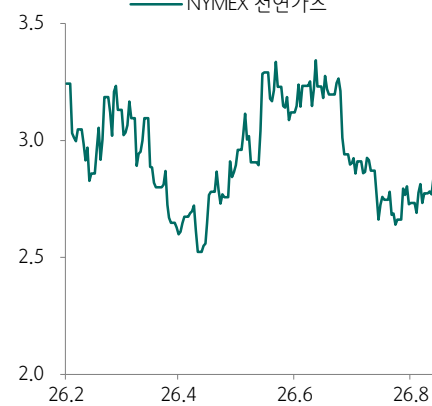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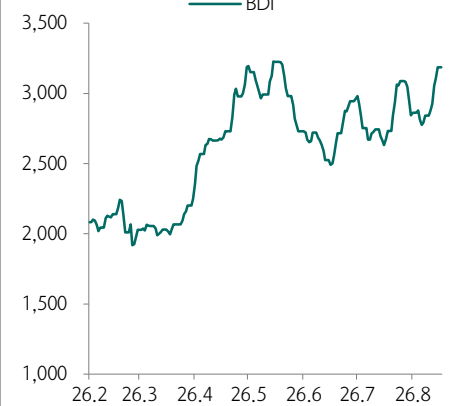
(달러/배럴)



(달러/MBt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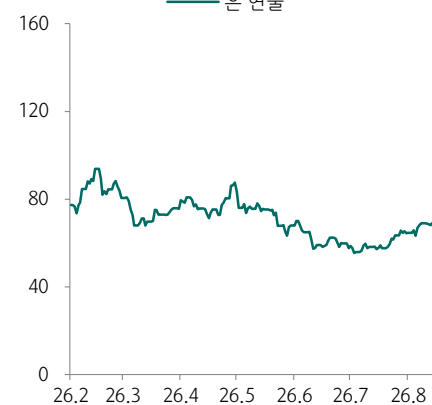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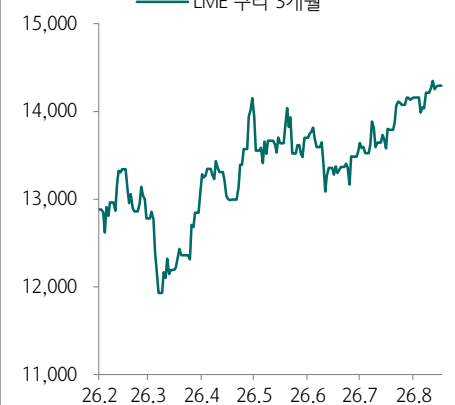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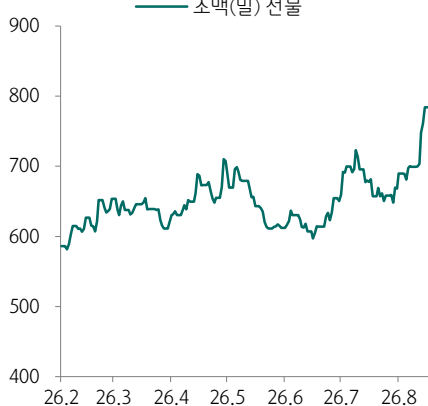
(달러/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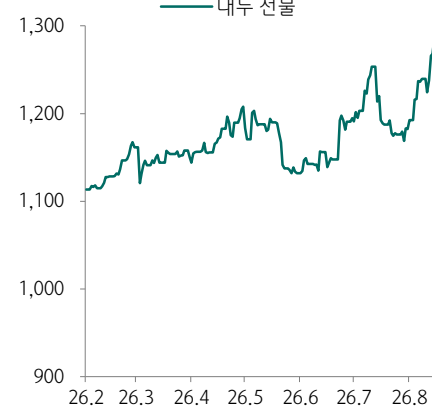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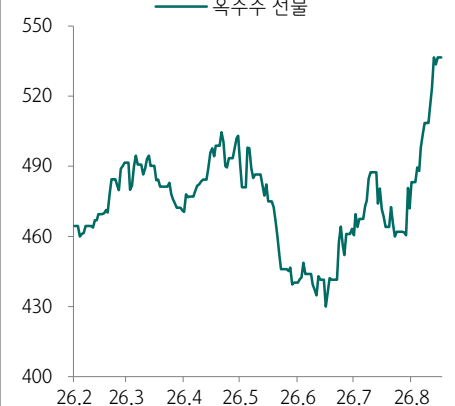
(센트/부셀)



(센트/부셀)



(센트/부셀)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에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8월 31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